

## 제 2 강

#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요한복음 1:9-14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영적인 세계의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잠시 언급 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 I.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1:4에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9절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두가지로 나타난다. 영접한 자와 거절한 자이다.

#### 1. 빛을 거절한 사람들(9-11)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9-11)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5절과 같은 의미인 것 같다. 이방 세계를 의미한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마음이 어두워 있기 때문이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 자기 백성은 그가 선택한 백성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요한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까지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말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생명을 주는 참 빛, 예수님은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치료약이다. 만약 의사가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그 병을 낫게 해 주는 치료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죽게 되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신 참 빛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

하지도 않음으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여러분은 우리 주위에 이처럼 참 빛으로서의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수년동안 눈물로 그 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 한번은 어거스틴이 창녀들과 어울려 술을 먹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 그의 어머니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모습은 어거스틴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예수님을 거절 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 2. 빛을 영접한 사람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1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right), 혹은 권세(Power)를 주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란 자연인으로서의 의지로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자들을 의미한다.

1:13절의 말씀에서“...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자다.”라고 했다. 여기서 강조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묘사되어 있다. 13절에서 세 가지 부정어가 있다: **혈통**으로가 아니다(문자적으로 “bloods”), **육정**(human decision)으로가 아니다. **사람**으로가 아니다(문자적으로 남자, 남편 husband’s will)). 우리의 육신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이다. 요한복음은 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부부가 결합해서 태어난 것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역사 곧 은혜로 태어난 것이다.

요한일서 5:1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이다. “Every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has been born of God.”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현재형이고 하나님께로 난자는 현재 완료형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먼저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어서 중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적인 활동이지만 우리가 거듭 나게 된 것은 우리가 전혀 의식 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실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경우와 같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해 주셔서 믿게 되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중생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고 하였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2:8에서도 명확하게 밝힌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다. 누구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랑 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알아야할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죽어 있는 자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성경 두 군데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벰전 1:23-25 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둘째는 약 1:18이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II.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14 )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을 읽을 때, 거기에 멈추지 않고 14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은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나무 아비 타불”과 같은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역사적인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왔다. 그의 구원 사역의 이야기-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를 거듭 나게 하고 새롭게 하기위하여 하나님이 고안하신 놀라운 지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방 종교에서 하듯이 주문을 외운다든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결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창조와 계시와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하나님을 보여 주시고 친히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헬라 적 사고에 따르면 아래 세상에서 지식을 얻어 영혼이 위로 올라감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데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신다.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헬라 철학에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 그분의 영광이 들어났다. 이 그리스도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우리 구원을 위한 진정한 지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은혜 위에 은혜의 사건이다. 그래서 요한은 16절에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갖게 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땀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고 더 깊은 교제를 하기위하여 거룩한 삶에 정진하게 된 것이다.

소경이 눈을 뜨면 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더 많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영적인 눈이 떠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하늘나라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 갈수록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쁨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해야 할 것은 의무적인 봉사나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거룩한 삶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예수 믿고 가졌던 경험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세상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사랑이 넘쳤다. 하루 종일 캠퍼스를 누비며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학교 다닐 때 책가방은 없이 성경만을 가지고 다닐 때도 많았다. 그러고도 최고의 학점을 받았다. 구원의 참 기쁨은 놀라운 능력을 들어낸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된 것이다. 지금도 나는 교회의 최고의 기쁨은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져서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자.